

#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이 사회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최유석<sup>1</sup>, 정은희<sup>2\*</sup>

<sup>1</sup>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sup>2</sup>한국보건사회연구원

## The Effect of Fair Treatment by Society on the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Youseok Choi<sup>1</sup>, Eun Hee Joun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

<sup>2</sup>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공정성과 사회갈등 인식의 미시적 기반을 탐색하는 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조사에 참여한 5,10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의 능력, 노력, 기술, 경력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가 사회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는 정도는 능력, 기술, 노력, 경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사회갈등 영역에서 진보/보수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정규직/비정규직, 부유층/서민층 순으로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9가지 항목으로 조사한 사회갈등은 인구학적 갈등과 정치경제적 갈등으로 유형화되었다. 요인점수값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신의 기술에 대해 사회가 공정한 대우를 해준다고 인식할수록 인구학적 갈등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다. 자신의 능력, 노력에 대해 사회가 공정한 대우를 해준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정치경제 갈등을 낮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술, 능력, 노력에 대해 사회적 대우와 인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인정, 존중, 동일시 노력이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itiated to explore the micro-foundation of fairness and social conflict in Korean society. It examined the effect of fair treatment by society on the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by using the survey data of 5,100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2022 Korean Consciousness and Valu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degree of fair treatment by society follows the order: ability, skill, effort, and experience. Progressive/conservative conflict was found to be the most severe among the various areas of social conflict. Social conflict measured by nine survey items was divided into demographic conflict and political-economic conflict based on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eople who responded that society treats their technology fairly are likely to perceive demographic conflict level as low. Furthermore, greater perception that society treats individual ability and effort fairly was associated with lower perception of political-economic conflict. The study indicates that an individual's skills, abilities, and efforts should be treated fairly and social recognition should be provided to alleviate and prevent social conflict in Korea. Making efforts to recognize, respect and identify with others are essential to alleviate social conflict.

**Keywords** : Justice, Fair Treatment by Society, Social Conflict, Intergroup Conflict, Social Recognition

이 논문은 2024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2404-002)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Eun Hee Joung(KIHASA)

email: ehjoung@kihasa.re.kr

Received April 29, 2024

Revised May 28, 2024

Accepted June 7, 2024

Published June 30, 2024

## 1. 서론

한국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1]. 그러나 국민들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안정된 직장과 같은 지위재(status goods)를 얻기 위한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2]. 저성장 시대에서 지위재의 총량이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지위상승 가능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3,4]. 현재의 경쟁은 부모세대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지위하락 방지를 위한 경쟁이라는 점에서 더욱 격렬한 양상을 보인다[4,5].

이러한 경쟁의 격화과정이 한국사회에서 자원배분의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배경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득 획득과 자산 축적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경쟁의 장에 새롭게 진입하게 된 청년세대는 게임의 규칙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6,7]. 분배 절차와 보상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이해관계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8-11].

최근의 능력주의(meritocracy)에 관한 담론은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무엇이 공정한가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은 개인의 기여, 능력, 노력에 따른 분배를 선호하고 있다[12,13]. 2018년 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입장이 66%를 차지하였다[3,13].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도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응답이 각각 42.8%, 37.5%를 차지하였다[12].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합쳐서 20% 정도에 불과하였다[12]. 개인의 노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초기조건이 과연 균등하게 제공되었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능력주의는 한국인의 마음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13,14].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 등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가 사회갈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 조건, 분배에서의 공정성이 어떠한지를 주로 사회적 수준에서 평가하였다[8,10,15]. 예를 들어 우리 사회는 교육, 취업, 복지혜택 등의 기회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8,15]. 주요 국가기관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지와 같이 절차적 공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8]. 이러한 조사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 기술, 경력 등에 대해서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를 해주는지에 대한 연구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능력주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능력, 기술, 노력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사회 수준에서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사회이다'와 같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였다. 사회적 공정성 인식의 기반인 자신의 능력, 기술, 노력 등에 대한 보상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적절하게 해주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사회적 인정이 사회갈등 인식과 맺는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공정성과 사회갈등 간의 관계의 미시적 기반을 탐색하는 시도이다. 개인이 자신의 능력, 기술, 노력, 경력에 대해 사회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관한 인식은 사회 수준의 공정성 인식의 경험적 기반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공정성은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8,10,16]. 사람들은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규칙과 절차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분배된 결과에 더 많이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다[9].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사전에 투명하게 제시되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람들은 결과에 더 잘 승복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적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회갈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조사에 참여한 5,100명의 응답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와 사회갈등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논의

### 2.1 공정성,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 사회갈등

일반적으로 공정성은 갈등상황이나 사회적 쟁점의 해결과 관련된 보상이나 처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9]. 기존 논의에서는 공정성의 차원을

1) 분배적 공정성, 2) 절차적 공정성, 3) 상호작용적 공정성 등으로 구분하였다[9].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은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이 자신의 준거기준에 비추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이다[9].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산출물을 얻게 된 과정이나 수단이 정해진 규칙이나 통상적인 규범에 순응하여 이루어진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적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존중과 대우 등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공정하였는지를 의미한다[9,17].

이 연구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 등에 대한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은 자신의 능력, 기술, 노력 등에 대한 보상과 인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 측면에서 사회의 공정한 대우는 주로 분배적 공정성과 상호작용적 공정성과 관련된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보상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분배적 공정성의 문제이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존중 또는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상호작용적 공정성의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각 집단이 처한 상황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11].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들은 상이한 공정성 잣대로 공정성에 호소하면서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경쟁한다[11]. 공정성에서 비롯된 사회갈등의 표출과 해결과정은 사회에 긍정적일 수 있다.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표현하고, 상대방 주장에 귀기울이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고, 갈등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소통과 화해의 과정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사회갈등은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목표나 이해가 대립하여 발생하는 충돌, 경쟁, 긴장상태 등을 의미한다[8,18]. 갈등은 부당함을 인지한 당사자가 피해복구 또는 보상을 요구할 때 발생한다[11]. 사회갈등은 크게 정체성 갈등(identity conflict)과 이해갈등(interest conflict)으로 구분할 수 있다[19,20].

정체성 갈등은 상이한 생활방식(life style)에서의 차이 또는 사회적 인정문제와 관련이 있다[19]. 상이한 성별, 연령, 지역, 국적 등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한 인구학적 속성에서 비롯된 상이한 생애경험과 생활방식을 갖고 있다. 자신의 생활방식과 정체성에 대한 무시, 차별, 부정 등은 집단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남녀갈등의 경우,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남성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근무가 당연한

것으로 요구받는 등 취업과 직장생활에서의 차별이 청년세대 남녀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21].

한편 이해갈등은 더 나은 생활기회(life chance)의 향유와 관련된 정치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다[19]. 이해갈등은 주로 정치경제 권력, 경제적 이익 등의 희소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진보와 보수, 부유층과 서민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가와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집단간 정치경제 권력과 자원의 상이한 분포에 따른 대결과 긴장이 이해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도변화에 따른 정치경제적 이익의 변동에 따라 이해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개혁 등 제도변화에 따른 경제적 자원배분의 변화를 둘러싼 이익과 손실의 변화가 집단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갈등은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 중첩되어 있다. 최근 들어 불거진 청년세대의 남녀갈등은 취업과정에서의 차별과 정규직과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할 가능성의 변화에서도 비롯된다[22]. 2023년 기준 남성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70.2%인 반면에 여성의 정규직 비율은 54.0%로 큰 차이를 보인다[23]. 그러나 20대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은 남녀 각각 60.7%, 58.7%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23]. 20대의 경우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면서 남녀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격화된 것이 청년층 남녀갈등이 심화된 배경이다[22]. 유사한 학력과 능력을 지녔지만 정규직 직장을 얻는 비율이 낮은 여성들의 불만과 자신의 안정된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라는 남성들의 인식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갈등일 뿐만 아니라, 청년층 남녀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이 사회갈등의 속성이 단일하지 않고 정체성 갈등과 이해갈등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의 특성을 인구학적 갈등과 정치경제 갈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인구학적 갈등은 정체성 갈등, 정치경제 갈등은 이해갈등과 대체로 상응한다.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이 두 가지 유형의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 2.2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과 사회갈등 인식 간의 관계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수준의 공정성 인식이 사회갈등 인식과 어떤 관련성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9,10]. 사회갈등은 자원 배분과 관련된 과정 또는 절차, 분배결

과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발생한다[16].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높은 인식은 사회갈등 인식을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9,11].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절차적 공정성의 경우 공정한 경쟁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갈등 행동의 발생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9,11,24]. 이의 분배에서 차등이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여 투명한 절차를 거친 결과라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분배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분배적 공정성에 관한 인식, 즉 투입에 대한 산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분배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수용하고 득실을 조정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9]. 셋째, 의사결정 과정 등 상호작용 과정에서 참여자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많이 할수록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9]. 실질적인 분배의 불공정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은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갈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는 상황이 불공정 인식을 해소하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이와같이 사회 수준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규명하는데 주력하였다. 사회 수준의 공정성 인식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 등에 대해 사회가 공정한 대우를 해주었는지와 같은 개인 수준의 경험에 기반한다. 개인이 경험한 처우가 어떠한지가 사회 수준에서 분배적, 절차적, 상호작용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소 등한시되었던 개인이 경험한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에 주목하였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는 갈등인식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가? 사회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사회갈등을 낮게 인식할 것이다.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능력, 노력, 기술 등에 대해서 응당 받아야 할 보상과 인정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11]. 이러한 판단은 비교집단 또는 준거집단이 받는 보상, 명예, 존중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유사한 능력, 노력, 기술을 가진 비교집단에 비해 부족한 보상과 인정은 부당한 대우라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비교집단과 상응하는 대우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11]. 이는 비교집단과의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 집단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저성장 시대에 자원의 총량이 급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몫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격렬한 경합이 벌어지기도 한다.

공정대우에 대한 인식 또는 판단은 개인의 행위와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대우받았다는 인식은 분배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되고, 분배를 둘러싼 갈등인식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녀갈등과 관련하여 남성 또는 여성 모두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대우가 공정하다고 인정할수록 남녀갈등의 정도가 낮다고 인식할 것이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이 사회적으로 관철된다고 인식할수록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원배분과 관련된 절차와 상호작용이 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11]. 그 결과 사회 수준에서 집단간 권력과 자원 배분의 공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공정한 규칙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신뢰와 협력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이는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을 낮출 수 있다.

사회적 대우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사회갈등을 낮게 인식하게 되는 배경에는 자기고양편향(self-enhancement bias)이라는 심리학적 메카니즘이 작동할 수도 있다[25,26]. 자신의 능력과 노력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며[25], 타인도 사회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집단간 불공정한 보상과 인정의 정도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사회갈등의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의 능력과 노력 등에 대해 사회로부터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은 개인의 불만과 좌절감을 가져온다[10,11]. 이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유사한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받은 보상이 적다고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된다[8,27]. 능력과 노력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에 대한 불만은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얻는 집단에 대한 시기와 분노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부과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진다.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지 않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 사람들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다른 집단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 3. 연구방법

#### 3.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2022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3년부터 3년 주기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28]. 2022년 조사에는 5,100명의 성인 응답자를 조사하였다[28].

#### 3.2 변수의 측정

독립변수인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은 응답자의 '두뇌(능력)', '일과 관련된 기술', '노력', '경력'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여기는지를 물었다. 응답은 '매우 공정하다'에서 '전혀 공정하지 않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사회갈등 인식은 1)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2) 기업가와 근로자, 3) 부유층과 서민층, 4) 수도권과 지방, 5) 남성과 여성, 6) 진보와 보수, 7) 대기업과 중소기업, 8) 정규직과 비정규직, 9) 한국인과 외국인 등 9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매우 크다'에서 '매우 작다'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20대~70대), 학력(고졸 미만, 고졸, 대학재학 이상), 혼인상태(미혼, 결혼, 사별/이혼), 거주지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를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경제활동 여부, 종사상 지위(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자, 기타), 주거지 점유형태(자가, 전세, 보증금있는 월세, 보증금없는 월세, 무상, 기타), 경제수준(중산층보다 낮다, 중산층이다, 중산층보다 높다)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의 정도(0-10점), 사회에 대한 신뢰(0-10점), 정치성향(매우 보수적(1)~매우 진보적(5))을 포함하였다.

#### 3.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공정대우가 사회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사회갈등 인식 변수의 경우 9가지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분석결과에서 언급하겠지만, 요인분석 결과 9가지 항목은 1) 인구학적 갈등, 2) 정치경제적 갈등 2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2가지 요인별로 요인점수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9개 갈등 항목 별로 서열로짓분석을 수행하

였다.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고 풍부한 해석과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 항목별 서열로짓 분석결과를 언급하였다.

### 4. 분석결과

#### 4.1 응답자의 특성

Table 1은 응답자 5,100명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남성이 50.1%였으며, 연령대별로 약 25%씩 고르게 분포하였다. 대학재학 이상 학력이 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근로활동 비율은 78.5%였으며, 상용근로자가 5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순이었다. 가구원수는 4명이 32.1%로 가장 많았다. 1인가구도 10.8%를 차지하였다. 가구월수입은 500만원대가 1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400만원대, 300만원대 순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관련하여 중산층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2%였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이 56.9%인 반면 미혼은 31.6%를 차지하였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7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지는 서울/광역시 등 대도시 거주자가 43.5%를 차지하였다. 정치성향은 중도가 41.4%로 가장 많았으며, 보수가 진보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유선택의 평균은 6.9점이었으며, 사회적 신뢰는 평균 5.8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5,100)

		Freq. (mean)	% (s.d.)
Gender	Male	2,554	50.1
	Female	2,546	49.9
Age	19~29	1,275	25.0
	30~45	1,280	25.1
	46~60	1,280	25.1
	61~79	1,265	24.8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463	9.1
	High School	2,086	40.9
	College	2,551	50.0
Work	Yes	4,004	78.5
	No	1,096	21.5
Employment Status	Full Time Worker	2,110	52.7
	Temporary/Daily Worker	407	10.2

	Self Employer w/ Employee	187	4.7
	Self Employer w/o Employee	1,015	25.4
	Family Worker	127	3.2
	Special Type Worker	25	0.6
	Others	133	3.3
No. of Household	1	548	10.8
	2	1,283	25.2
	3	1,351	26.5
	4	1,636	32.1
	5 or more	282	5.5
Household Income (million won)	less than 1	123	2.4
	1~1.99	317	6.2
	2~2.99	718	14.1
	3~3.99	826	16.2
	4~4.99	948	18.6
	5~5.99	986	19.3
	6~6.99	600	11.8
	7~7.99	309	6.1
Economic Status	Middle Class	1,947	38.2
	Higher than Middle Class	322	6.3
	Lower than Middle Class	2,831	55.5
Marital Status	Unmarried	1,610	31.6
	Cohabitation	237	4.7
	Married	2,903	56.9
	Widowed, Divorced, Separated	350	6.9
Housing Occupancy Type	Own	3,969	77.8
	Deposit Only	811	15.9
	Monthly Pay w/ Deposit	284	5.6
	Monthly Pay w/o Deposit	20	0.4
	No Payment	14	0.3
	Others	2	0.0
Residency	Large City	2,216	43.5
	Middle or Small City	1,977	38.8
	Town	907	17.8
Political Inclination	Very Conservative	261	5.1
	Conservative	1,362	26.7
	Middle Way	2,097	41.1
	Progressive	1,267	24.8
	Very Progressive	113	2.2
Free Decision Marking		(6.9)	(1.4)
Social Trust		(5.8)	(1.5)

#### 4.2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 인식

Table 2는 개인의 능력, 기술, 노력, 경력에 대해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사회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 정도는 능력이 49.6%로 가장 높았으며, 기술이 48.6%로 그 다음이었다. 경력은

34.9%로 가장 낮았다. 능력과 기술의 경우 객관적으로 발휘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력의 경우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력의 경우 사회의 대우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거의 20%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한국사회가 개인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력, 경력, 기술, 두뇌(능력) 순으로 불공정하다고 인식한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12]. 한국인들은 과정에 투입된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요구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개인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노력의 투입이 아닌 성과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Table 2. Perception on Social Treatment

(unit: %, point)

	Very Unfair	A Little Unfair	Neither Fair nor Unfair	Fair	Very Fair	mean	s.d.
Brain (Ability)	0.6	11.8	38.0	46.8	2.8	3.39	0.75
Skill	0.6	11.4	39.4	43.5	5.1	3.41	0.78
Effort	1.0	18.9	44.4	31.5	4.2	3.19	0.82
Career	0.9	15.3	49.0	32.3	2.6	3.20	0.76

#### 4.3 사회갈등 인식

Table 3는 9개 영역별로 사회갈등의 정도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응답자들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89.4%의 응답자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크다(‘큰 편이다’, ‘매우 크다’ 합산)고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78.8%), 부유층/서민층(76.1%), 대기업/중소기업(74.6%) 순으로 갈등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갈등이 가장 작은 영역은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으로 43.2%정도가 갈등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진보와 보수집단 간의 정치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8,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1]. 정치갈등은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더욱 격렬한 양상을 띤다.

최근 들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양상도 정치갈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배경이다[4].

Table 3. Distribution of Perception on Social Conflict

	Very Small	Small	Large	Very Large	mean (s.d.)
Older vs. Younger Generation	3.5	31.9	49.7	14.9	2.8(0.7)
Metropolitan vs. Local Province	5.3	36.9	43.9	14.0	2.7(0.8)
Male vs. Female	6.0	42.0	39.1	12.9	2.6(0.8)
Korean vs. Foreigner	6.2	50.6	37.4	5.8	2.4(0.7)
Businessman vs. Worker	1.6	23.4	53.6	21.4	2.9(0.7)
Rich vs. Poor	1.7	22.2	49.4	26.7	3.0(0.7)
Progressive vs. Conservative	1.0	9.7	34.9	54.5	3.4(0.7)
Large vs. Small Company	1.3	24.1	54.3	20.3	2.9(0.7)
Regular vs. Non-regular Worker	1.7	19.5	49.8	29.0	3.1(0.7)

한국인의 의식변화 조사는 2006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사회갈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2006년부터 추적할 수 있었다. Fig. 1은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에서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진보/보수, 남성/여성 간의 갈등의 경우 매우 크다는 응답은 최근 들어서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진보/보수의 경우 매우 크다는 응답은 2006년 19.6%에서 2022년 54.5%로 급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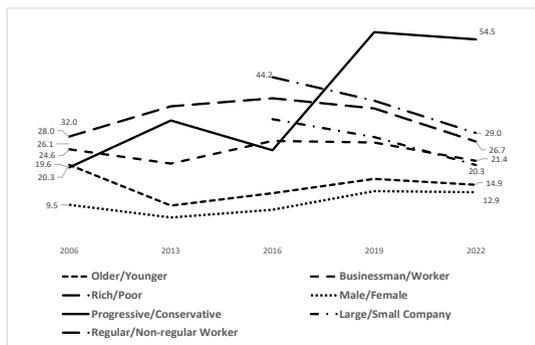


Fig. 1.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Answered 'Very Large' in Social Conflict

남성/여성 간 갈등이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2006년 9.5%에서 2022년 12.5%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 비율은 20,30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별도 분석). 예를 들어 30대의 경우에도 매우 크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두

기간 사이에 9.1%에서 14.8%로 증가하였다(별도 분석). 20,30대는 대학입시, 취업, 승진, 결혼 등의 생애 주요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남녀차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9개 영역에서의 집단간 갈등에 관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는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방법과 varimax 방식으로 회전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두 요인을 각각 인구학적 갈등과 정치경제적 갈등으로 지칭하였다. 인구학적 갈등에는 기성세대/젊은세대, 수도권/지방, 남성/여성, 한국인/외국인 집단 간의 갈등이 포함되었다. 정치경제적 갈등에는 진보/보수, 기업가/근로자, 부유층/서민층,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집단 간의 갈등이 포함되었다.

인구학적 갈등과 정치경제적 갈등은 각각 정체성 갈등, 이해갈등과 대체로 상응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정체성 갈등으로 구분하였다[19]. 진보와 보수진영의 고유한 이념적 지향과 가치관의 차이는 정체성 갈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19]. 그러나 요인분석 결과,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은 정치경제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 갈등의 성격을 더 많이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갈등과 정치경제적 갈등에 포함된 갈등집단의 속성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각 유형과 관련된 영향요인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인구학적 갈등과 정치경제적 갈등의 요인점수값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 Factor Analysis of Social Conflict

	Factor 1	Factor 2
Older vs. Younger Generation	0.333	-0.101
Metropolitan vs. Local Province	0.313	-0.037
Male vs. Female	0.377	-0.147
Korean vs. Foreigner	0.356	-0.129
Businessman vs. Worker	0.044	0.234
Rich vs. Poor	0.093	0.173
Progressive vs. Conservative	-0.253	0.452
Large vs. Small Company	-0.065	0.363
Regular vs. Non-regular Worker	-0.081	0.367

#### 4.4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과 사회갈등 회귀분석

##### 4.4.1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과 인구학적 갈등

Table 5는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신이

가진 기술에 대해 사회가 공정한 대우를 해준다고 인식할수록 인구학적 갈등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다. 세부영역별 분석에 따르면 기술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수도권/지방, 남성/여성, 한국인/외국인 간의 갈등을 낮게 인식하였다(별도분석). 한편 능력, 노력, 경력은 인구학적 갈등 인식의 변이와 관련이 없었다.

기술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기술에 대해 사회로부터 공정한 인정을 받는 경우, 성별, 지역, 국적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인구학적 집단 간 갈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할 수 있다.

다른 변수들의 경우, 자유선택의 정도가 높을수록 인구학적 갈등을 낮게 인식하였다. 자유선택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타인과의 갈등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할 의사가 높을 수 있다. 그 결과 각종 인구학적 집단 간의 갈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인구학적 갈등을 높게 인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갈등회피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인식을 갖는다[29].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인구학적 갈등을 높게 인식하는 배경에는 연령과 지역효과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신뢰가 높은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연령, 농어촌 거주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영역별 서열로짓분석에 따르면 이들 집단은 한국인/외국인 간의 갈등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별도분석).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어촌, 지방도시의 경우 외국인과의 마찰을 빚는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적일수록 인구학적 갈등을 높게 인식하였다.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보수성향에 비해 사회갈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30].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저연령대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갈등론적 시각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인구학적 갈등 인식에는 차이는 없었다. 학력과 관련하여 고졸, 대학 이상 집단이 고졸미만에 비해 인구학적 갈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고학력 집단일수록 사회비판적이고 갈등론적 인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집단들은 상대적으로 저연령대이며, 세대갈등과 남녀갈등을 높게 인식하였다(별도분석).

Table 5. Regression Analysis: Social Fair Treatment and the Perception on Social Conflict (n=5,100)

		Demographic Conflict		Political and Economic Conflict	
		coeff.	s.e.	coeff.	s.e.
Fair Treatment	Ability	0.003	0.023	-0.046	0.022*
	Skill	-0.132	0.022***	0.016	0.022
	Effort	-0.008	0.020	-0.130	0.020**
	Career	0.021	0.023	-0.007	0.023
Free Decision		-0.048	0.010**	0.060	0.010**
Social Trust		0.028	0.010**	-0.064	0.010**
Progressive		0.049	0.017**	-0.001	0.017
Male(Female)		-0.013	0.029	0.005	0.029
Age (20's)	30's	0.027	0.056	-0.054	0.055
	40's	0.027	0.063	-0.018	0.063
	50's	-0.036	0.069	-0.033	0.069
	60's	-0.033	0.075	-0.020	0.075
	70's	-0.027	0.093	-0.016	0.093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0.051	0.054	-0.078	0.054
	Widowed, Divorced, Separated	-0.063	0.062	0.022	0.062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0.179	0.062**	0.001	0.061
	College or more	0.146	0.070*	0.055	0.070
Work(No)		0.030	0.041	-0.085	0.041*
Employment Status (Full Time)	Temporary/Daily	0.016	0.056	0.157	0.056**
	Self Employer w/ Employee	0.105	0.076	0.123	0.076
	Self Employer w/o Employee	-0.098	0.041*	0.197	0.041**
	Family Worker	-0.016	0.093	0.113	0.093
	Special Type Worker	-0.006	0.198	0.207	0.197
	Others	-0.088	0.092	0.276	0.092**
Household Income		-0.050	0.009**	0.036	0.009**
Economic Status (Middle Class)	Middle Class	0.049	0.030	-0.122	0.030**
	Higher than Middle Class	0.213	0.059**	-0.296	0.059**
No. of Household		-0.013	0.018	-0.017	0.018
Housing Occupancy Type (Own)	Deposit Only	-0.207	0.041**	0.011	0.041
	Monthly Payment	-0.211	0.064**	0.072	0.064
	Free, Others	0.649	0.248**	0.109	0.247
Residency (Town)	Large City	-0.035	0.040	0.089	0.040*
	Middle/ Small City	-0.179	0.040**	-0.035	0.040
Constant		0.749	0.156**	0.349	0.156*
R <sup>2</sup>		0.0432		0.0513	

\*p<0.05 \*\*p<0.01 Reference categories for dummy variables are in parentheses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인구학적 갈등 인식이 낮았다. 그러나 중산층보다 높다고 응답한 중상위층의 경우 중산층 미만 집단에 비해 인구학적 갈등 인식이 높았다. 이 집단은 수도권/지방, 한국인/외국인 간의 갈등을 높게 인식하였다(별도분석). 중상위층의 경우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제한된 지위재 획득을 둘러싼 집단간 갈등이 높다고 인식할 수 있다.

주거형태와 관련하여 전세, 월세거주자가 자가소유자에 비해 인구학적 갈등 인식이 낮았다. 반면에 기타형태 거주자는 자가소유자에 비해 인구학적 갈등을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기타형태 거주자의 낮은 소득수준과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 주거불안정이 일상에서의 갈등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중소도시 거주자는 읍면지역에 비해 인구학적 갈등을 낮게 인식하였다.

#### 4.4.2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과 정치경제 갈등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은 정치경제 갈등과 더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자신의 능력, 노력에 대해 사회가 공정한 대우를 해준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정치경제 갈등을 낮게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사회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을 낮게 인식하였다(별도분석). 그러나 기술과 경력에 대한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 인식은 정치경제 갈등 인식의 변이와 관련이 없었다. 자신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은 사회나 제도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감을 증진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다른 집단들도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으로 이어짐으로써 집단간 갈등을 낮게 인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5,26].

인구학적 갈등 분석결과와는 달리 자유선택 인식이 높을수록 정치경제 갈등 인식도 높았다.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치경제 갈등인식이 낮았다. 사회적 신뢰의 갈등 예방 또는 완화효과는 정치경제 갈등 영역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속성 중에서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은 정치경제 갈등과 관련이 없었다. 경제활동 여부와 관련하여 경제활동집단의 정치경제 갈등인식이 비경제활동집단에 비해 낮았다. 임시직, 피고용인없는 자영업, 기타형태 근로자의 정치경제 갈등인식이 상용직에 비해 높았다. 이들은 상용직에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 지위를 갖고 있으며, 부자/빈자, 진보/보수,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갈등을 높게 인식하였다(별도분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치경제 갈등인식도 높았다. 이들은 특히 기업가/근로자, 진보/보수 갈등을 높게 인식하였다(별도분석). 반면에 중산층, 중상위층의 경우 중산층 미만 집단에 비해 정치경제 갈등인식이 낮았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집단간 갈등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대도시 거주자들이 읍면지역에 비해 정치경제 갈등인식이 높았다. 이들은 경쟁의 강도가 높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정치경제 이해관계를 둘러싼 집단간 갈등을 경험할 기회도 높을 수 있다.

## 5. 논의와 결론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갈등을 촉발하기도 하고 해결하는데도 기여한다[11]. 분석결과 개인의 능력, 기술, 노력에 대해 사회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의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사회적 수준에서의 공정성 인식(예: 취업기회의 공정성)과 갈등 인식은 부적인 관련성을 맺었다 [10]. 자신의 능력과 노력 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차별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사회수준에서 집계된 공정성 인식과 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기반이다. 사회가 공정한 대우를 해준다는 인식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 등에 상응하게 적절한 보상과 인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회적 대우가 적절하다고 인식할수록 자원배분의 정당성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집단간 갈등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기술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10].

사회적 대우의 공정성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이 인구학적 갈등과 정치경제 갈등과 맺는 관련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술은 인구학적 갈등과 관련된 반면 노력과 능력은 정치경제 갈등의 변이와 관련을 맺었다. 인구학적 갈등으로 구분된 세대, 남녀, 수도권/지방, 한국인/외국인 간의 갈등은 일종의 정체성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의 근원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의 연령, 성별, 또는 국적 등에 대한 무시와 배제는 상이한 인구학적 속성을 지닌 집단 간 갈등이 빚어지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대갈등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세대간 정치, 경제적 자원배분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 그러나 노인세대의 자신의 경험에 대한 존중의 욕구와 이에 대한 무시 또는 사회관계에서의 배제로

부터 갈등이 생겨난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차원의 갈등이 존재한다.

인구학적 갈등에 속하는 갈등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생득적인 특성을 지닌다. 성별, 연령, 국적의 경우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능력과 노력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가 인구학적 갈등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수 있다. 반면에 기술은 자격증 등의 형태로 객관적인 측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노력, 능력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자신의 기술에 대해 사회적 대우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지역간 소득격차, 회사에서의 남녀차별, 한국인/외국인과의 갈등에서도 자신의 고유한 기술의 개발과 인정을 통해 갈등의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반면에 정치경제 갈등에 속하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부유층/서민층, 진보/보수 등의 경우 갈등의 양상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균열구조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노력, 능력 등 사회적 대우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의 영향이 정치경제 영역에 속하는 갈등에서 좀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치경제 갈등의 경우,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유리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물론 대기업 취업, 정규직 지위, 부유층이 되는 것은 부모의 영향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떠한지, 능력과 노력에 따른 공정한 처우를 받는지가 정치경제 갈등에 대한 인식의 변이와 더 긴밀한 관련성을 맺는다.

갈등의 유형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과 양상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힌 것도 이 연구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구학적 갈등의 경우, 단순히 집단간 갈등에서 열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같은 분배정의 실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대갈등의 경우, 단순히 청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거나, 국민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세대갈등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정, 존중, 동일시 노력이 결국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갈등의 유형과 구조, 갈등이 발생하는 맥락인 정체성을 둘러싼 인정투쟁을 고려한다면 집단간 소통을 좀더 활발히 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31]. 최근 1인가구의 증가, 결혼 및 출산의 감소는 집단간 소통의 기회와 빈도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세대간, 남녀간 서로의

삶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서로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기회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31]. 갈등의 표출을 통해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의 균열구조가 무엇인지, 국가, 기업, 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이 표출되고 당사자 집단의 이해관계와 공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면서 집단간 상호이해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11].

이 연구의 한계는 사회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 정도를 단일 항목으로 조사한 점에 있다. 개인이 살아가는 가족, 회사(동료, 상사),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개인이 접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가 개인의 협력 또는 갈등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 정도에 대해 응답할 때 상이한 영역을 떠올리고 응답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상사, 동료로부터의 대우를 떠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공공기관(예: 법원)으로부터의 대우를 연상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이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 개인의 차별경험은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사회적 공정성과 사회갈등 간의 관계를 좀더 엄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Social integration survey 2022, 2023.
- [2] J. Yee, "Social Quality, Competition, and Happiness", *Asia Review*, Vol.4, No.2, pp.3-29, 2015.
- [3] H. Jeong, Survey on perceptions of fairness in Korean society: Korea's unfair situation, what is the problem?, Korea Research.
- [4] Y. Choi, Happiness Inequality in Korea, Beopmunsa, 2023.
- [5] B. Lee, Education after Moon Jae-in, Medici, 2020.
- [6] S. Lee, "Koreans' Perception of Distribution: Implications for the 'Meritocracy' Discussion", *National Future Strategy Insight*, Vol.50,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22.
- [7] G. Jo, "MZ, the generation of 'super gap' and 'struggle for fairness'", *Philosophy and Reality*, Vol.132, pp.95-109, 2022.

- [8] G. Lee, "Exploring Social Justice as a Mechanism of Reducing Social Conflict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Vol.19, No.4, pp.27-51, 2015.
- [9] D. Lim, G. Park, "A Perceptual Study on the Influence of Justice on Social Conflict: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and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26, No.4, pp.87-123, 2017. DOI: <https://doi.org/10.22897/kipain.2017.26.4.004>
- [10] H. Lim, J. Eun, "What makes us angry?: The triangle of fairness, communication, and social conflict", Paper presented at the 2020 Korean Policy Association Spring Conference, 2020.
- [11] Mikula, G., and Wenzel, M., "Justice and Social Conflic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35, No.2, pp.126-135, 2000. DOI: <https://doi.org/10.1080/002075900399420>
- [12] K. Jo, J. Choi, "Seoul Citizens' Perception of Fairness and Policy Implications," *Policy Report*, No.364, Seoul Institute, 2023.
- [13] K. Park, "Perception and Characteristics of Meritocracy in Korea", *Citizen & the World*, Vol.38, pp.1-39, 2021.
- [14] M. Woo, E. Nam, "Meritocracy as Justice Rule and Inequality Perception: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64, No.1, pp.201-244, 2021. DOI: <https://doi.org/10.31930/JAS.2021.03.64.1.201>
- [15] M. Yoon, J. Lim, "A Study on Fairness and Perception of Inequality in Korea: Focusing on Age group and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Public Society*, Vol.12, No.1, pp.40-80, 2022. DOI: <https://doi.org/10.21286/jps.2022.02.12.1.40>
- [16] G. Park, "Korean Society Viewed through Conflict", *Hyundai History Plaza*, Vol.2, pp.104-111, 2013.
- [17] H. Kim,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Organiza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Trus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41, No.2, pp. 69-94, 2007.
- [18] C. Lee et al.,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for social integration,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p.10-16, 2010.
- [19] M. Kim, "Conflict and Social Integration of Korean Society", *Social Integration Research*, Vol.3, No.1, pp.1-26, 2022. DOI: <https://doi.org/10.46907/sir.2022.3.1.1>
- [20] A. Chang, M. Kim, S. Lee, "Class Conflict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Beyond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Discourse21*, Vol.18, No.4, pp.5-34, 2015. DOI : <https://doi.org/10.17789/discou.2015.18.4.001>
- [21] Maeil Business Newspaper, ""They don't select women because they are women", "Reverse discrimination through quota system"... Recruitment that causes gender conflict", 7.1. 2022. <https://www.mk.co.kr/news/society/10371754>
- [22] T. Lee, Gender Conflict in Korean Labor Market,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2022.
- [23] Statistics Korea, Supplementary Survey 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employment type), 2024.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XD9002](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XD9002)
- [24] D. Pritt, P. Carnevale, Negotiation in Social Conflict, Pacific Grove, 1993.
- [25] Y. Kim, J. Ko, "Self-and Spouse-Enhancement, Subjective Happiness, and Marital Quality in Married Couple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5, No.2, pp.167~182, 2011. DOI : <https://doi.org/10.21193/kispp.2011.25.2.009>
- [26] S. Taylor, J. Brown,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Vol.103, No.2, pp.193-210.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03.2.193>
- [27] J. Martin, Relative Deprivation: A Theory of Distributive Injustice for an Era of Shrinking Resource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1981.
- [28]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2 Korean consciousness and values survey, 2022.
- [29] Y. Jang, J. Jeong, M. Cho, "Social Capital and Social Conflicts in Korea: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Survey Research*, Vol.10, No.2, pp.45-69, 2009.
- [30] S. Ka, "Citizens' perception on public conflict resolution: A comparative study by governments",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ol.23, No.1, pp.161-181, 2023.
- [31] H. Ryu, S. Lee, "A Study on Causes and Managements of Social Conflicts in South Korea: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 Types", *Korean Society*, Vol.17, No.1, pp.39-80, 2016. DOI : <https://doi.org/10.22862/kisr.2016.17.1.002>

최 유 석(Youseok Choi)

[정회원]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문학석사)
- 2009년 5월 :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철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복지정책, 복지행정, 불평등, 세대갈등

정 은 희(Eun Hee Joung)

[정회원]



- 2001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문학석사)
- 2011년 5월 :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철학박사)
- 2012년 2월 ~ 현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빈곤정책, 불평등, 소득보장, 아동복지